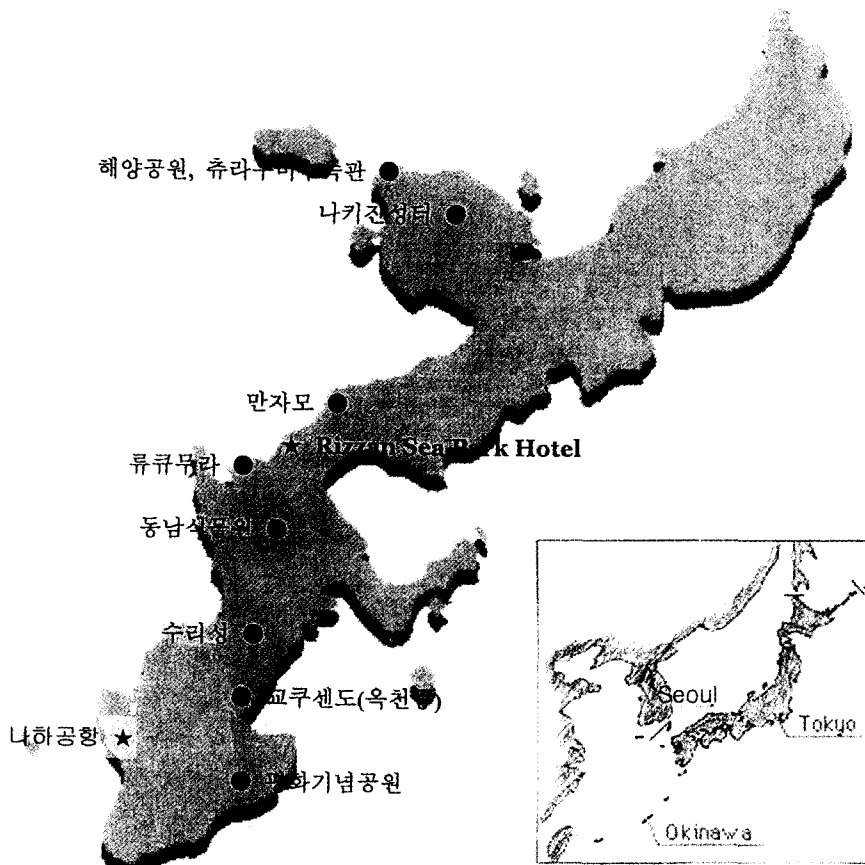


» 기행문 «

오키나와(沖繩) - 日本 속의 외국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吳 在 賢

나하(那覇)로 : 나하국제공항에 내릴 때까지 오키나와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대학생시절 소게이센(早慶戰)<sup>1)</sup>이 끝나면 신주쿠(新宿)<sup>2)</sup>로 몰려가 신주쿠역 미나미구치(南口)에 있는 오키나와 선술집에서 오키나와 고유의 독한 술, 아와모리(泡盛)와 돼지족발로 기세를 올린 기억이 난다.



오키나와 본도

이 오키나와 선술집을 단골로 다니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술값과 안주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 사람은 돼지족발을 잘 먹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東京에서 1년간 보내게 되어 아파트생활을 하였다. 그 때 마침 아파트 옆 방에 오키나와에서 온 아가씨 두 분이 살고 있었다. 눈썹이 짙고, 체구가 왜소하였다. 유치원 선

<sup>1)</sup>와세다대학교 과 게이오대학의 야구시합

<sup>2)</sup>와세다대학에 가까운 동경 서쪽의 한 변화가

생님으로 東京의 어느 유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다.

여름방학 때에는 九州 남단 가고시마(鹿兒島)까지 기차로 가 그곳에서 배로 오키나와를 다녀오고는 하였다. 신기한 것은 그녀들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오키나와는 日本 영토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가 오키나와에 관해서 아는 것의 전부였다. 태풍이 오고, 미군기지가 있고, 그래서 가끔 트러블이 생기기 신문기사가 되기도 하였으나 관심 밖의 일이었다. 日本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45년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키나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결국 오키나와에 오고 말았다.

2시간 20분의 비행시간동안 가지고 온 오키나와 안내책자를 뒤적거렸다. 오키나와현 면적 2,269 km<sup>2</sup>, 인구 1,324,834명, 년 1인당 소득이 2,158천엔으로 日本에서 제일 하위이다. 이러한 통계수자 가지고는 실감이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와 비교해 보았다. 면적은 제주도의 1.23배, 인구는 2.4배, 자동차보유대수는 약 4배, 그리고 소득은 약 2배이다. 오키나와 본도<sup>3)</sup>의 면적은 제주도의 약 65%이나, 인구는 2배에 가깝다.

이러한 통계수자를 제주도와 비교해 볼 때 오키나와가 제주도보다 결코 쾌적한 곳이 못됨을 짐작케 한다.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오키나와 본도에서는 면적의 20%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나하공항에서 온나손(恩納村)의 릿산 씨 파크 호텔(Rizzan Sea-park Hotel)로 가는 연도는 가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마을과 기지가 이어져 있고 자동차가 붐비고 있었다. 산은 보이지 않고 언덕 같은 구릉이 이따금 보이는 평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제주도처럼 산과 고원이 어우러진 자연의 색채와 넉넉함을 찾을 수 없었다.

#### 모도부반도(本部半島) : 해양박물관과

나키진구스크 : 코발트블루색과 에메랄드색의 산호초바다가 펼쳐지는 온나(恩納) 비치 리조트 지역, 800 m의 길이를 자랑하는 단차 (谷茶)해안의 산호초 백사장에 Rizzan Sea-park Hotel이 서있다. 현관에서 프론트로 들어가면 정면에 산호초바다가 유리창 너머로 시원하게 180도로 전개되고, 밀물 때에는 잔잔한 맑은 파도가 호텔 바로 앞 모래사장을 적신다. 558개의 객실 수는 오키나와 최대의 규모이며, 식당수가 하도 많아 찾아가는데 헛갈린다. 그래도 어느 식당이든 바다가 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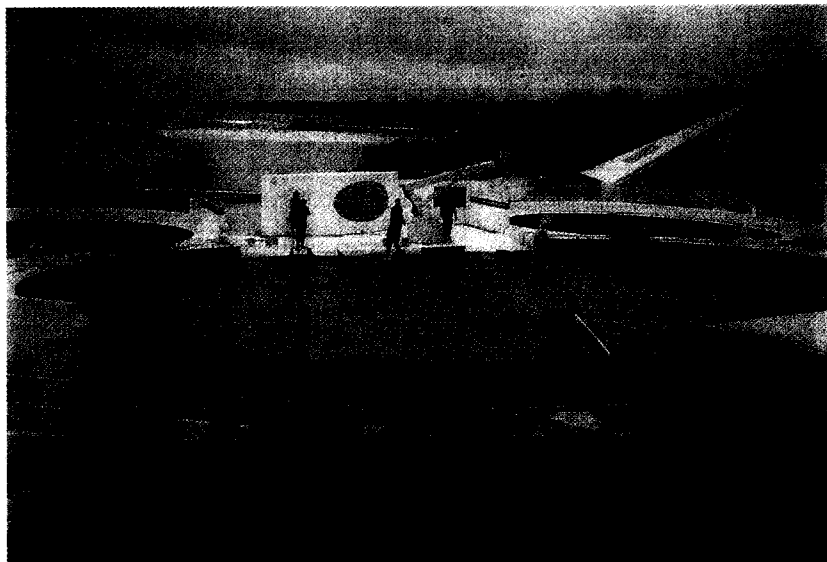


<sup>3)</sup>오키나와 본도 면적 1,201 km<sup>2</sup>, 인구 약 100만명, 제주도 면적 1,847 km<sup>2</sup>, 인구 약 547천명

여유 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해양박물관(海洋博物館)과 나기진조세키(今歸仁城跡)를 관람하기 위하여 모도부(本部)반도로 왔다.



해양박물관의 중앙광장



돌고래쇼 관람. 멀리 에메랄드 비치가 보인다.

안바루<sup>4)</sup>의 서쪽, 동지나해에 돌출 된 모도부반도는 야에다케(八重岳 : 454 m) 등의 산이 있고 또 바다가 있어 남부지역과 달리 아름다운 자연적인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sup>4)</sup>오키나와 본도의 북반부

오키나와의 日本 복귀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5년 이 모도부에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그 박람회의 기념사업으로 정비한 것이 이 해양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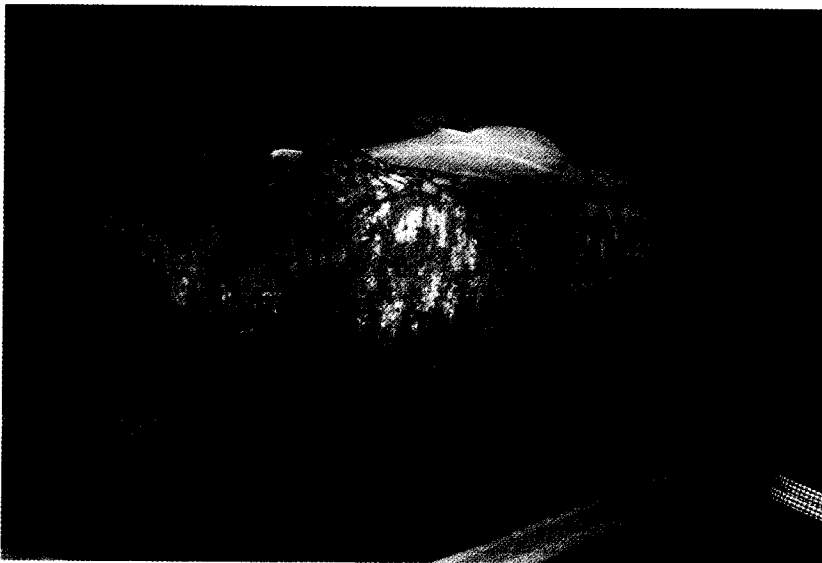


대형수조 “구로시오의 바다”(10,000톤)



아쿠아룸(aqua room)

돌고래 쇼를 관람한 다음 바로 옆의 오키나와 츠라우미수족관(沖繩美ら海水族館)으로 이동하였다. 세계 최대급을 자랑하는 「구로시오의 바다」 대형수조(10,000톤)에서는 고래상어가 수직으로 헤엄치며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과 가오리 등이 유연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아크릴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층 아쿠아룸(aqua room)에서는 이들 관경을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그리고 집체만한 거대한 어미 등에서 뾰족도 안하고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새끼를 보는 재미도 나쁘지 않았다.



새끼가 등에 업혀 잠자고 있는 수조 안 모습

이 오키나와 류라우미 수족관에서는 세상에서 크기가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와 쥐가오리를 여러 마리 사육, 번식시키는 한편, 오픈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살아있는 산호를 사육 전시하는 등, 세계에서조차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구로시오 난류가 열도를 따라 북상하는 위치에 있어 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띤다. 겨울 평균 기온은 15~18°C, 여름은 27~29°C이며, 연평균 기온이 22~23°C로 높은 편이다. 고온 다습한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인하여 발달한 산호초가 널리 퍼져 있어 독특한 해안지형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해류에는 많은 어류가 서식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조건이 오키나와 이곳에 해양박물관을 만들게 했을 것이다.



사적 나किन 성터(今歸仁城跡) 입구



미니 만리장성을 방불케한 나किन 성곽



세계유산기념비

이 공원과 인접한 오키나와 로열 뷰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초록빛이 풍성한 해안, 에메랄드 비치를 산책한 후 나키진조세키(今歸仁城跡)로 왔다.

구스쿠는 오키나와 말로 성을 말한다. 일본의 성과 미니 만리장성을 방불케 한 나키진 성지에는 벚꽃나무에 새 앞의 눈이 트고 지다 남은 꽃 봉우리가 제법 달려 있다. 모도부반도의 북측, 초록이 짙은 숲으로 둘러싸인 이 산성터는 5만 평방미터나 되어 후술하는 슈리성(首里城)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이 성은 14-15세기, 오키나와에 남산(南山), 중산(中山), 북산(北山)의 세 세력이 대립하고 있던 삼산시대, 북부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北山王의 3대에 걸친 거성이었다. 난공불락, 오키나와 굴지의 명성이었다.



은나(恩納)해안의 만좌모(万座毛)경관

그러나 1416년 中山의 쇼하시(尙巴志)에 의해서 멸망되어 北山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北山の 패복 후 中山은 북부지역의 관리로서 감수(監守)를 설치하여, 감수의 거성으로서 이 구스크(城)를 이용하였다. 1609년에는 큐슈(九州) 사쓰마군의 류큐(琉球) 침공을 만나 성은 불타고 말았다.

성문 앞에는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기념비가 서 있고, 구스크 주변에서 생활한 마을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나키진촌 역사문화센터가 있다.



류큐무라(琉球守) 스넵 -사탕수수에서 사탕액을 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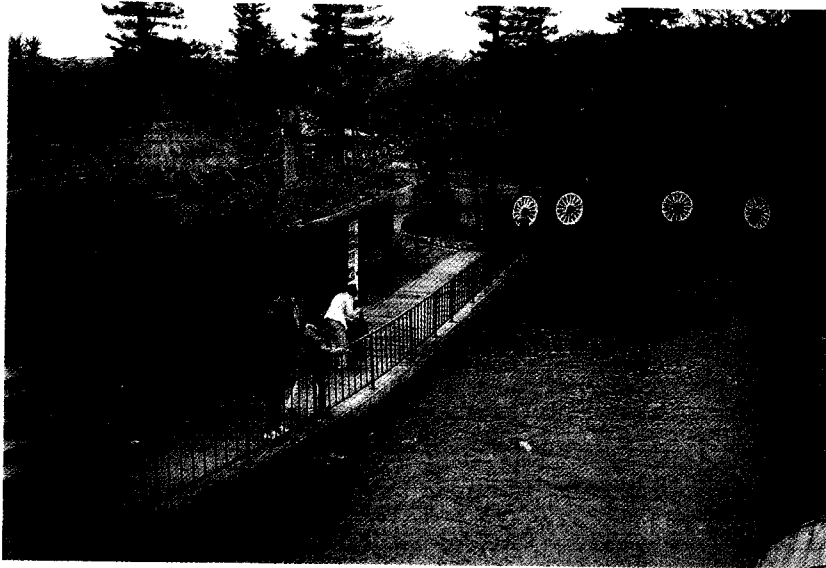
류큐무라(琉球守) 스넵 -돼지의 사육처(Full)-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만자모(万座毛)에 들었다. 파도에 침식된 석회암 단층과 그 위로 펼쳐진 넓은 들판으로, 18세기 류큐 왕인 쇼케이(尚慶)가 '만인이 앉아도 죽한 별판' 이라고 감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코끼리의 코 모양을 한 단층과 절벽,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짙푸른 바다가 절경이다.



동남식물낙원의 입구

주차장 입구에는, 18세기 오кина와의 대표적 여류가인(歌人) 온나나베(恩納ナベ)가 왕 일행을 환영해서 읊은 「파도소리도 멈춰라. 바람소리도 멈춰라. 슈리(首里)에서 오신 귀하신 분 배알코저 한다。」의 가비(歌碑)가 서있다.



식물원 풀리네이시안 호수에서 잉어떼와 놀다.

나하(那覇)<sup>5)</sup>에서 : 2월 20일, 9시 50분 호텔에서 나하공항 가는 리무진버스를 타고 나하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온나 해안에서 나하까지 오кина와본도의 중남부를 관통해서 달려온 것이다. 그저께도 보고 느낀 점이지만 이





식물원 스냅

중남부에는 산도 없고, 하천도 볼 수 없었다. 평평한 대지의 연속이다.

오키나와현은 161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나, 산을 가진 높은 섬 고도(高島) 즉 산지섬과, 산이 없는 낮은 섬 저도(低島) 즉 대지(台地)섬의 두 종류의 섬이 있다. 오키나와 본도는 그 북부가 산악지대이나, 중남부는 평탄한 대지상(台地狀)으로, 고도와 저도가 접합한 형태로 되어있다. 즉 1시간 20분간의 버스주행은 저도부에 속하다.

먼저 오키나와 최대의 도시 나하, 이 나하에서도 가장 번화한 곡사이도우리(國際通り)로 왔다. 약 1.6 km 이어지는 연도에는 백화점, 선물가게, 레스토랑, 카페, 술 도매점 및 전자쇼핑몰 등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고, 붐비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처참한 전쟁터의 들판에 세워져, 눈부신 발전을 함으로서, 「기적의 1마일」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비가 왔다 그쳤다 하는 이 「곡사이 도우리」를 거닐면서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닮은 마키시(牧志) 공설시장을 기웃거리고, 미쓰코시(三越) 백화점의 1층에서 7층까지 훑어 보고, 구다카(久高) 민예점에서는 오너가 직접 만든 류큐 유

리·도자기 민예품과 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악세서리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아와모리조(泡盛藏) 점포 앞을 지나면서 아와모리술의 종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약 600년 전부터 오키나와에서 만들기 시작한 아와모리는 日本 최고의 증류술이고 소주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15세기에 태국에서 류큐로 전해진 아와모리는 에도막부에 현상할 만큼 귀중한 술이었다. 류큐왕조시대에는 왕부에서 인정받은 집 이외에서는 아와모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어느 류큐 민속식당에 들어갔다. 오키나와 가정요리의 대표적인 참프루(チャンプルー), 그것도 고야참프루를 먹기 위해서다. 고야를 주재료, 콩나물, 계란과 돼지고기를 넣어 기름으로 볶은 것이다. 고야는 외형만 보면 수세미와 닮았다. 오키나와 특산물인 이 고야는 비타민을 비롯해서 식물성유가 풍부해서 건강야채로서 인기가 높다. 고야의 약간 쓴 성분은 혈당치를 낮춘다고 한다. 그 나라 토지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경험에 의한 새로운 발견이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다.

식후 이 곡사이도우리를 또 걸었다. 출입문에 가까운 돌담에는 이시간도 [石敢當]라는 팻말이 문패같이 달려있기도 하고 혹은 돌담 속에 박혀있기도 한다. 귀신을 쫓는 부적 같은 것으로 중국부터 전해온 풍습이다. 최신 빌딩입구에도 틀림없이 이 “石敢當”을 볼 수 있다.

**日本속의 외국, 오키나와** : 곡사이도우리(國際通り)를 거닐면서, 아니 그저께 나하국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오키나와는 日本속의 외국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공항에서 온나해안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연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묘지가 臺灣의 그것과 꼭 닮았다. 日本 본토의 묘와는 전연 판판이다.

오키나와는 규슈(九州) 남단으로부터 약 685 km 떨어져 있고, 臺灣의 동해와는 불과 100 km 거리에 있다. 그러므로 臺灣의 풍물이 오키나와에 전래해도 어색하지 않다. 미쓰코시 백화점 점원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 어딘가 남방계 사람들의 인상을 안겨준다.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눈썹이 짙다. 서두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

<sup>3)</sup>오키나와현의 수도 나하는 인구 약 30만, 오키나와의 정치, 경제 및 교통의 중심지이다. 류큐왕조시대 수도·슈리의 외향으로 변영하고, 19세기는 미국인 페리제독도 래향 한 항구도시이다.

오키나와인은 키가 큰 쑹크스족(구 만주민족)과 화북(華北)의 중국인과는 외견상 다르다. 오키나와 인이 “원일본인”으로 볼 수 있는 화석인골이 발견되어 일본인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오키나와는 12세기부터 구스쿠시대, 대교역시대, 류큐왕국시대를 거쳐 17세기 초두 日本 가고시마의 시마즈(島津)씨의 침략에 의하여, 일본의 바쿠한(幕藩) 체제에 강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 역사의 고분시대(3세기 중반)부터 전국시대까지의 1300년 넘게 日本 본토와 오키나와는 별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류큐무라(琉球村)와 슈리성(首里城)을 보고 확인한 것이지만, 오키나와 인은 독자의 신화와 독자의 고전을 가지고 있고, 더욱 세계의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전통과 관성은 쉽게 섬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독립권으로서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키나와를 日本속의 외국으로 느낀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 흔히 볼 수 있는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간판도, 본토의 주요 시중은행의 간판도 이 곡사이도우리에서, 나하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은행, 류큐은행 그리고 류큐신보사 등의 사옥만이 당당하게 서 있다.

日本서 압도적으로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신문들이, 미쓰이(三井), 스미모토(住友) 등의 재벌 시중은행이 일본 곳곳에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유독 오키나와만은 예외라는 것이 日本속의 외국으로 실로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다. 외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키나와에는 250년간에 걸친 사쓰마한(薩摩藩)부터 받은 통렬한 피 착취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류큐처분(琉球處分)<sup>6)</sup>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태평양전쟁 전 「직공구함. 단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은 사절」이라는 포스터가 공장지대의 담벼락과 전주에 붙어 있었다. 일본 본토에 온 오키나와 노동자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차별, 편견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다.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오키나와 전은 전쟁 역사상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였다. 그 전장에서 오키나와 현민의 1/3인 15만명과 9만의 군인이 죽었다. 오키나와 전에서는 그토록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민은 우직하게도 열심히 돕고 싸웠다. 그런데도 때로는 자기나라 군대가 주민을 적시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동굴에 숨어있는 주민, 어린이와 노약자를 적의 포탄 속으로 쫓아내고 우군 군대가 차지하였다.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배신의 진실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다.

태평양전쟁 후 오키나와는 미군영토가 되고, 1972년 겨우 일본으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이 조그만 오키나와 현에 日本 미군기지의 75%가 집중하고 있다. 오키나와 본토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가데나쵸(嘉手納町)는 83%가 미군기지이다. 오키나와에는 26,000명의 미군이 있다. 여기에 군속과 가족을 보태면 약 51,000명이 된다. 이들 미군관계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1972년부터 2003년까지 32년간에, 살인, 강도·강간 등의 흉악범이 690건, 조폭범이 1,176건, 절도범이 2,231건 이었다.

이와 같은 피 착취, 차별과 멸시 그리고 미군에 의한 피해, 이 모두가 일본의 류큐(오키나와) 강점에 의한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민족을 나뉘놓아 민족상잔의 6.25전쟁과, 60년 분단의 씨를 뿌린 것도 일체의 한국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감정이, 복합적인 거부반응이 그 유력한 신문사를, 시중은행을 오키나와에 상륙 못하게 한 것인가. 그렇더라도 같은 국가 영토 안에서 이런 일을 감행하고, 또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하의 추억 중에서 꼭 기록해 두고 싶은 대목이 있다.

나하버스터미널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타고 온 리무진버스(공항-호텔 간) 사무실에서, 15시 50분 발 버스의 승차권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승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sup>6)</sup>1879년 명치정부에 의하여, 류큐한이 오키나와현으로 바뀐 것을 말함.

승차시간 10분전이나 되었을까, 그때 사무실 분이 승차장에 나타나 공항에서 이미 만원이 되어 이번 버스는 탈 수 없고, 17시 발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리 예고된 일이다. 그러나 17시 버스도 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많은 시간 기다려야 하니, 16시 발 시외버스를 타고 가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식구 말고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각자 2명씩 데리고 온 네 명의 일산 아줌마팀이 있었다. 이분들은 일본말을 잘 몰랐다.

사무실 분이 우리 식구 6명과 일산 아줌마팀 12명, 합 18명의 부대를 이끌고 시외버스 승차장으로 갔다. 물론 미안하다면서 승차권을 환불해 주었다. 리무진버스와 시외버스는 별개의 회사이다.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 분은 부슬비를 맞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여사무원이 한분 더 가세하여 우리의 승차 여부를 걱정하며 역시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다.

시외버스가 들어오자 그분들은 운전수에게 우리가 하차하는 장소를 전하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그분들의 친절에 답하였다.

나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란 이것뿐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 있는 친절한 시민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자연적인 행동이었다. 아주 보편화된, 생활화된 친절이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글을 읽은 일은 있지만, 이처럼 경험하리라고는 정말 뜻밖이었다. 훈훈한 인정에 접하는 것이 여행의 소득이요,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슈리성(首里城)** : 류큐무라(琉球村)와, 도난쇼쿠부쓰라구엔(東南植物樂園)을 거쳐 슈리성으로 왔다. 매일 비가 왔다 그쳤다 하는 지지분한 날이었는데, 오늘은 흐리기는 해도 빗방울은 없을 것 같다.



중국의 책봉사(冊封使)와 국왕만이 출입하는 환회문(歡會門)

오키나와의 옛날 민가를 옮겨 놓은 류큐무라는 우리나라의 민속촌과 닮았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양한 문화를 이 곳의 실정에 맞게 재창조한 것이다. 사탕수수에서 흑설탕을 만드는 과정, 옷감 짜는 광경을 유심히 관람하였다.

동남식물락원은 40만<sup>2</sup>m의 광대한 지역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2000종 이상의 식물이 이식되어 있는 식물들의 낙원이다. 열대 수련(水蓮)이 만발하는 폴리네시아인 호수, 450종의 야자수가 장관을 이루는 식물원 등

신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두 군데 다 하루쯤 시간을 잡아 차근차근 관람하면서 이곳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음미하고 싶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관광단의 일정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식물원에서 중식을 들고, 민첩하게 슈리(首理)로 이동하였다. 특히 오늘 저녁시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슈리성에서 조망하는 나하시

오키나와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슈리성이다. 류큐왕조의 수도로서 450년간 번영한 고도 슈리(首理). 나하를 내려다보는 표고 120m의 높은 대지에서 서 있는 슈리성은 류큐왕국의 상징이다. 13~14세기 오키나와에서 아지(按司)라고 불리는 수령이 각지에서 대두하여, 구스쿠(성)를 축조하여 항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지키아지(佐敷按司)의 쇼하시(尚巴志)가 1416년에 북산왕(北山王), 1429년에 남산왕(南山王)을 멸망시키고, 류큐전토를 통일하였다. 그리하여 슈리(首理)를 거점으로 하는 통일왕조를 탄생시켰다.

이 슈리성은 1429년부터 시작되는 류큐왕조의 거성임은 물론 정치·문화·외교의 장이기도 하였다. 창건은 14세기 초~중기로 추정되며, 지세 군세면에 있어서나 풍수상에서도 이상적인 입지였다. 성내의 구성은, 북경(北京)의 자금성, 서울의 경복궁·창덕궁과의 유사점이 많아, 아세아 각 국가의 교역이 왕성했을 때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872년(명치 5년) 류큐왕국은 강제로 류큐한(琉球藩)으로 편입된 후, 1879년(명치 12년)의 폐한치현(廢藩置縣)에 의하여 오키나와현(縣)이 되었다. 그리고 1881년 오랫동안 수도였던 슈리부터 현청이 나하로 이전하였다. 이 무렵 슈리성은 일본군대의 병사로 사용되어, 어정(御庭)에는 병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개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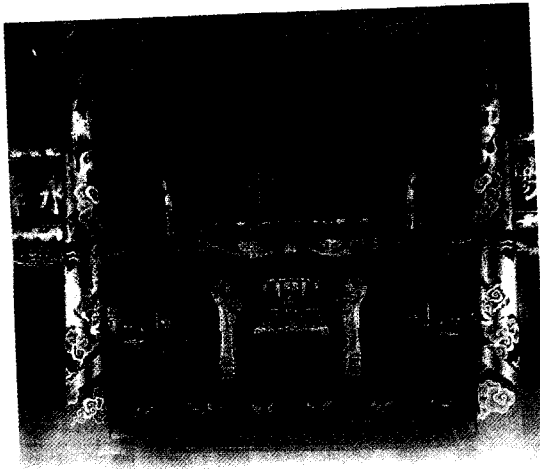
전 후 복원 안이 구체화하여 1992년 슈리성은 47년 만에 소생하였다. 현재는 성 주변의 시설도 복원되어, 류큐왕조의 영화의 상징, 완전한 형태의 슈리성을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은, 「류큐는 예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라는, 슈례문(守禮門, 1527~1555년 창건)을 지나, 중국부터 온 책봉사(冊封使)와 국왕만이 출입하는 환회문(歡會門)을 통과하였다. 슈리성 정전(正殿)까지는 몇 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 언덕길이라 힘들기는 하였지만 고색의 돌담과 바둑판같이 깔려 있는 돌길은 슈리성 전체를 싸고 있고, 이 돌길을 한발 한발 오를수록 전개되는 조망은 왕년의 슈리성의 아름다움을 상상케 하여, 즐거움은 각별하였다.

정전(正殿)은 류큐왕국 최대의 목조건물로 슈리성의 얼굴이다. 3층 건물로, 장식화 된 용주(龍柱), 지붕에 가로 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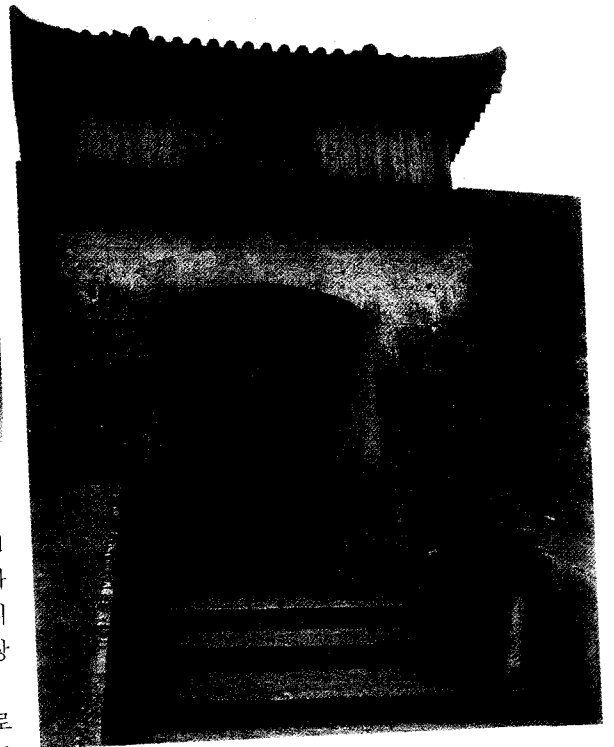
슈리성(首里城)의 정전(正殿)



정전 2층의 대고리(大庫理)의 관경

있는 용의 장식 등은, 류큐 독자의 형식이라고 한다. 1층의 하고리(下庫理)는 국왕과 중신들의 중요한 의식과 회의장으로 쓰이고, 2층의 대고리(大庫理)에서는 왕가의 행사를 베풀었다. 대고리의 옥좌는 우리나라 경복궁·창덕궁에서도 본 일이 없을 만큼 화려하였다.

옛날 슈리성 정전(正殿) 2층(대고리)에는 중국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글(어서)이 아홉 개의 액자로 만들어져 걸려 있었다. 황제가 왕의 즉위를 축하하거나 고회를 기념하기 위해 친히 승인한 글을 류큐로 보냈다고 한다. 류큐사람들은 이것을 소중히 복제하여 옷칠을 하고 금박을 입혀 정전 2층에 걸었다. 지금 이곳에는 그 중 세 개의 액자가 복원되어 있다. 그 세 개는 「중산세토」 「집서구양」 「영조영유」이다. 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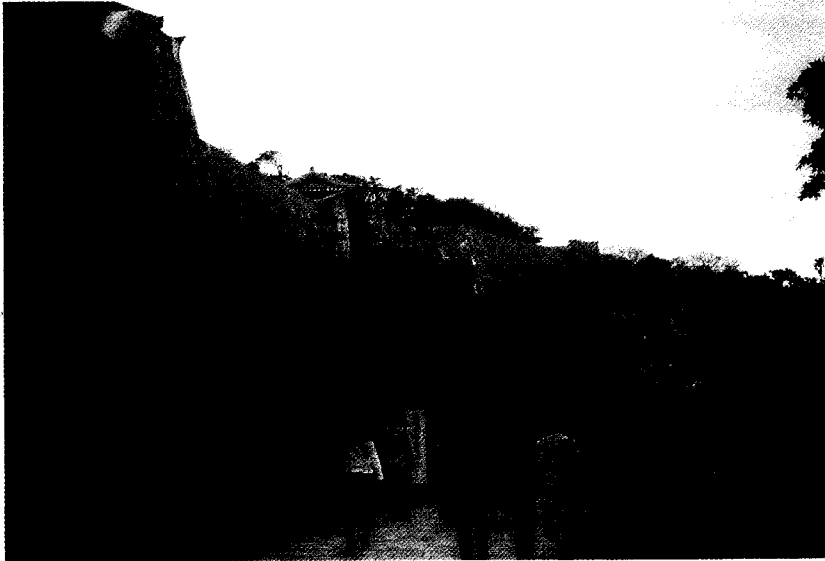


주로 여성만이 사용하는 통몽문 久慶門

「중산세토」 中山世土 : 중산은 대대로 류큐국왕의 나라이다.

「집서구양」 輯瑞救陽 : 류큐가 영화롭기를 바란다.

「영조영유」 永祚瀛洲 : 바다건너에 있는 류큐를 오래도록 평화롭게 다스려라.



슈리성의 아름다운 돌담과 돌길

「중산세토」는 중국 청조(1644~1912)의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로부터 상정왕(尙貞王)이 하사받은 것이다. 5세기의 긴 영고성쇠의 역사를 단 1시간 반으로 이해해야하는 무례한 관람을 마치고, 오키나와 월드 문화왕국 교쿠센도(玉泉洞)로 왔다. 다마구스크(玉城)·지년한도(知念半島)의 최대의 관광지로, 동양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玉泉동굴은 처음 보는 신비스러운 종유석으로 가득하였다.



옥천동(玉泉洞) 동굴속의 종유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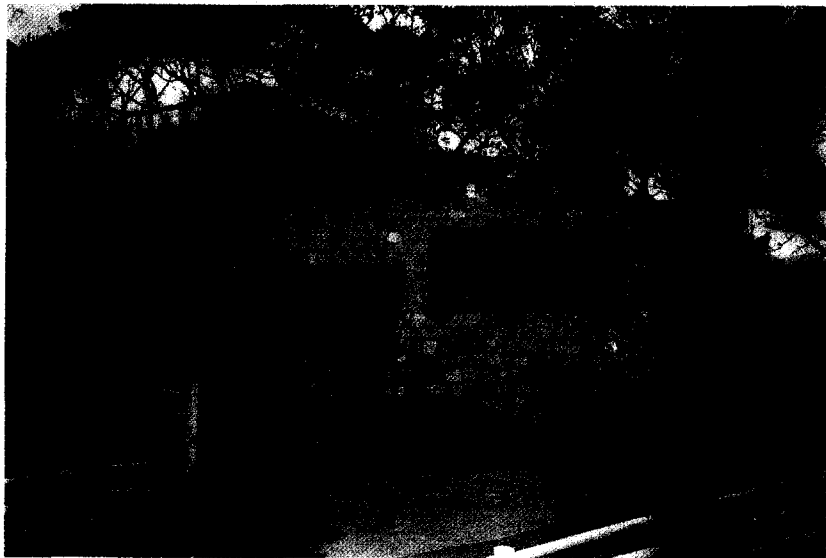
**평화기념공원(平和祈念公園) · 한국인 위령탑(韓國人 慰靈塔)** : 교쿠센도(玉泉洞)에서 오키나와 전 최후의 격전지였던 오키나와 남부 이도만(絲滿)시로 왔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이다. 이곳 마부니(摩文仁) 언덕에는 평화기념공원이 있고, 그 한구석에는 한국인 위령탑도 자리 잡고 있다.

1945년 5월 27일, 맹위를 떨친 미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슈리성 지하의 제32군 사령부포를 포기, 얼마 안 되는 잔존병력과 같이, 오키나와 본도 남부로 철퇴하였다. 마부니의 언덕에 사령부를 설치한 오키나와 수비군은, 전화(戰火)를 피해서 피난한 주민 10수만과, 3만 여의 병사가 좁은 칸미(喜屋武) 반도에서 범벅이 되었다.



**한국인 위령탑**

「철의 폭풍」으로 불리우는 미군의 맹공격은 쉬지 않고, 전사자가 속출하였다. 부상자는 자결용의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밀크가 지급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 바다로 투신 혹은 수류탄으로 자결하였다. 그 참상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한국인 위령탑 입구의 비문들**

지금 이 마부니의 언덕에는 그 영을 달래는 히메유리(姬百合)의 탑, 가지가지의 평화기념관, 자료관, 미술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의 잔혹함, 평화의 존엄함이 호소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祈念)시료관

한국인 위령탑은, 1975년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져간 돌로 쌓아 선인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비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한국청년들은 일본의 강제적 징모에 의하여, 대륙과 남방의 각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 오키나와의 땅에도 징병 징용으로 동원된 1만여 명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강요당해, 혹은 전사 혹은 학살되어 억울한 희생이 되었다.」